

## 2016년도 창작뮤지컬육성 시범공연지원 심사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6년도 문예기금 창작뮤지컬육성 시범공연지원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심의 : 2016. 3. 3(목) 10:00, 대학로예술극장 지하1층 연습실
  - 2차 심의 : 2016. 3. 23(수) 10:00, 대학로예술극장 6층 스튜디오 하늘

2016년도 창작뮤지컬육성 시범공연지원에는 총 53건(대극장 공연 20건, 소극장 공연 33건)이 접수되었고, 심의는 1차 서류심사, 2차 PT심사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심의는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공연작품의 예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을 기준으로 하여 1차 서류심의에서는 2차 PT심의대상 12건을 선정하였으며, 2차 심의에서는 공연에 대한 계획 PT발표(10분) 및 질의응답(5분)을 통해 시범공연 최종 지원 작품을 선정하였다.

1차 서류심사는 작업의 완성도보다는 창작자와 제작자의 역량과 공연의 실현가능성,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소재의 참신함과 대중성을 고려하여 작품을 선정하였다. 시범공연 지원작품들은 전체적으로 완성도를 갖추었으며, 신선한 소재와 참신한 이야기의 구성으로 재치 있는 작품들이 많았으나 관객의 공감대를 구성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눈에 띄지 않은 점은 아쉽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실현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이 지원하고 있어 창작뮤지컬육성을 위한 지원제도가 창작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심의에서는 기존 대본공모 등의 선정작을 포함하여 총 12건(대극장 5건, 소극장 7건)을 선정하였다.

2차 PT심사는 작품의 발전가능성과 제작 수행 능력에 중점을 두고 1차 선정 작품의 실현계획을 심층 심사하였다. 심의 대상 작품들은 사실에 기초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거나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삼은 작품, 가상의 공간과 깊이 있는 철학적 메시지를 내포한 작품 등 우리 창작뮤지컬의 현주소와 긍정적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작품 전개와 차별성,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지원 작품 제출 및 발표 자료의 충실성을 우선 기준으로 하였다. 실험성과 공연단체의 역량 또한 심의 기준이 되었으며, 뮤지컬이란 장르의 특성상 스토리와 음악적 완성도를 기본을 심사한 후 실현가능성, 예술성, 제작역량을 2차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가장 중요한 6월에 진행될 쇼케이스 공연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았으며, 각 작품별 쇼케이스 공연에 책정한 예산계획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하였다. 2차 심의에 참여한 모든 작품은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전제하에 면밀한 검토와 숙고를 거쳐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2차 심의를 통해 시범공연 지원대상으로 총 10건(대극장 4건, 소극장 6건)을 최종 선정하였고, 한정된 지원금 예산과 공연장 규모별 형평성을 감안하여 대극장 공연과

소극장 공연의 지원예산을 각각 동일한 예산으로 배정하였다.

시범공연 선정 여부를 떠나 끊임없는 창작뮤지컬의 발현과 투자지원 필요성에 절감하는 동시에 2016년 창작뮤지컬 시범공연 지원작 대부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며, 단계별 지원을 통해 좋은 작품으로 성장하여 대표 콘텐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2016년 창작뮤지컬육성 시범공연지원 심의위원 일동